

영국 BBC 방송 회견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이라크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도 이라크전의 파병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제 평화 및 안정의 유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한국군은 계속적으로 주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연장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많은 논란과 개인적인 정치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치안 유지와 민주정부의 수립이 보다 중대한 과제라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위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세계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파병과 이의 연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이라크전 이후 세계가 보다 안전해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의 제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전의 타당성 여부를 논란으로 삼기보다는, 향후 이라크의 사회적 정,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축 등을 위한 효과적인 해법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라크전 자체 그리고 미국의 전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제 질문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현실 정치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부시 행정부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세계의 지도자들은 보편적인 세계질서의 유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양국은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핵 능력만으로 위협의 강도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전반적인 국제질서 내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평가해야 할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최근의 미국 방문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위협이 더 이상 없으며 핵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대북한 정책에서 미국이 강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해

현재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경입장이라기보다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강경책의 구사에 대한 주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핵무기 개발계획으로 인해 현 북한 핵 위기가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핵보유를 어느 국가도 용인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시설이 잘 관리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인권문제는 압박이나 체제 교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보다는 개혁과 개방화를 유도하여 북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정치적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 개방화와 경제개발이 북한의 경우에도 주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현상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른 평가와 견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포용정책은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는 무력의 사용이 보다 많은 문제를 초래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따라서 대화와 화해를 통한 해결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